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김민지¹, 이재용²

《요약》

이 연구는 중복형 혁신학교인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가 학교 참여 경험을 통해 학교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참여 학부모를 일반 참여 학부모, 학부모회 집행부 학부모, 아버지회 학부모 그룹으로 나누어 총 11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모두 경험하고 있었고 이는 추후 학교 참여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는 본인을 ‘교육소비자’, ‘교육조력자’로 인식할 때 화, 서운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었다.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교육소비자’, ‘교육조력자’, ‘교육주체’로서의 정체성은 고정적이지 않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에 대한 인식전환,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 학교 참여 학부모의 감정에 대한 분석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혁신학교, 학부모 학교 참여, 교육주체,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의 감정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김민지의 석사학위 논문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 성화초등학교 교사, edel97@naver.com (주저자)
2. 청주교육대학교 조교수, educounsel@cje.ac.kr (교신저자)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혁신학교는 교육주체간의 자발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는 학교이다. 혁신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을 위한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학교의 혁신은 교육공동체들의 자발성에 기초하며 학교 운영 또한 민주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운승, 2016). ‘교육 3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민주적 ‘교육공동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학교의 지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 교사만을 넘어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학부모는 기존의 초대받는 손님의 위치에서 벗어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의 교육주체성은 넓은 의미에서는 ‘의식화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단위 학교 차원의 좁은 의미에서는 ‘학부모가 학교의 공동주인으로서 학교 교육 참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한다(오재길, 2017). 학교의 주체로서 학부모도 주변의 개입 없이 학교에 대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학교 정책에 참여하며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학교 정책에 참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학교 참여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학교 현장의 풍토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논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1995년 5.31 교육 개혁 이래로 신자유주의 교육을 기본 뼈대로 하여 교육정책이 실행 되어오면서(권미경, 2016), 교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 학부모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구하는 수요자로 관계가 설정되었다(권미경, 2016). 학부모는 수동적인 수요자의 역할로 오랜 기간을 지내면서 개별적인 방식으로 학교 참여를 시도하였으나, 최근에는 학부모 개인 차원의 소극적 참여가 아닌 학부모 공동체 차원의 적극적 참여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방식으로 학교 참여를 하던 많은 학부모들에게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는 학부모들에게도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왔다. 학교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및 학부모 정책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특히 혁신학교 안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학부모의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학부모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 바로 혁신학교이다. 각 혁신학교들은 교육의 한 주체로,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부

모의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다. 학교 참여는 학부모에게 있어서 단순히 자녀교육을 위한 권리만이 아닌 학교교육 전반의 성공을 위한 참여의 의무가 있는 곳이 혁신학교인 것이다(최운진, 전하람, 2019).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혁신을 위한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와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편이다.

최근까지 혁신학교에 관해 연구를 분석한 유주영, 유성상, 김진아, 권순정(2016)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중 혁신학교 관련 연구 80편을 분석하였는데, 그 중 학교 구성원에 대한 연구는 총 28편으로, 교사에 대한 연구 16편, 교장에 대한 연구 5편, 학생에 대한 연구 6편, 학부모에 대한 연구 1편이었다. 문혜림(2017)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혁신학교와 관련된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10편을 분석하였는데, 교사 포함 연구가 84편, 학생 포함 연구가 31편, 학부모 포함 연구가 13편으로 나타났고, 그 중 연구 대상을 학부모만으로 한정된 연구는 한편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혁신학교에서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협력 및 주체적인 학교 참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적 경험을 세밀하게 탐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충북형 혁신학교인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는 혁신학교 학부모로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혁신학교

혁신학교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학교로 정의할 수 있다(박상완, 황해동, 2019).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를 민주적 학교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8). 혁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전북, 전남, 강원, 충북 등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점차 확산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박상완, 황해동, 2019).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로 각 시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예산 운용의 자율성, 교사·학부모의 참여에 의한 학교자치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송병춘, 2013), 사용하는 이에 따라 의미상 차이는 있지만 학교교육(공교육)의 변화, 개선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박상완, 황해동, 2019). 혁신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실행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금까지 혁신학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이 교사의 운영경험(이경아, 이병준, 정미경, 2016) 및 교육경험(이연선, 연희정, 한안나, 2017), 학생의 재학 경험(서민희, 전경희, 2018) 및 학업성취도(김민규, 박세진, 2019),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주연, 이경언, 이민형, 임유나, 2020) 등에 주로 주목해서 연구되었다. 혁신학교의 교육적 성장과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주체적인 참여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혁신학교 교사 및 학생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 학부모의 학교 참여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학부모가 된다. 학부모는 자녀가 유아 때부터 고등교육을 받을 때까지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을 막론하고 자녀를 교육기관에 위탁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경아, 양병찬, 이진이, 심명인, 윤정은, 2010). 부모는 학부모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학교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관심을 갖게 되며, 이 때 학부모로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학교를 경험하게 된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류방란, 황지원, 임후남, 김경애, 2019). 첫째는 활동 차원으로 학교경영, 교육활동, 지원활동, 소통으로 학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조직 차원으로 학부모 학교 참여 행위나 활동과 그것의 기반이 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는 역량강화(교육) 차원으로 학부모교육 등으로 가정이나 학교

기반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하는 것이다. 이 중 일반적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라고 불리는 것은 활동 차원의 영역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2016)는 학부모의 교육기부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이 좋아지며, 부모-학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부모 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한다고 분석하였다. 류방란, 황지원, 임후남, 김경애(2019)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학교신뢰도 등과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학부모 학교 참여가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도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비롯하여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와 공동체 의식 형성 등과 같은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혁신학교 학부모들은 일반학교 학부모들보다 학교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학교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혁신학교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와는 무관하게 혁신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주체로서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학교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최운진, 심재휘, 2019). 다만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혁신학교 학부모들과 일반학교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경험이 지닌 차별성과 동등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기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혁신학교 학부모로서 학교 참여 과정에서 보편적이면서 특수한 경험이 지닌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세밀하게 탐색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3. 혁신학교 청주S초등학교의 학부모 참여 활동

이 연구에서는 충북 내 혁신학교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에 대해 주목하였다. 청주S초등학교는 2007년 22학급으로 개교하여 2019년 현재는 44학급, 10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충북 혁신학교 도입 초기인 2015년 행복씨앗학교로 선정되어 5년간 운영되고 있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나눔을 실천하는 학교, 민주적으로 함께 하는 학교,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학교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청주S초등학교는 교육 3주체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년별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고, 큰 사안은 3주체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16년 이후로 매년 5개 이상의 학부모 동아리가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부모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활동 공간을 요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실을 따로 만들어 상시 개방하여

학부모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주S초등학교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표 1>과 같은 학부모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 참여 활동

활동	세부내용
모니터링	급식, 배식 모니터링, 학년 모니터링, 학운위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행사 운영	어린이날, 스승의날 등갯길 행사, 구룡산 가족등반(연2회), 온가족 캠프(연2회), 도서바자회, 아빠와 체험의 날
학부모 동아리 활동	독서 동아리, 캘리그래피 동아리, 기타 동아리, 마을 배움길 동아리 봉사단
교육기부	봉사단 - 텃밭관리, 버 체험, 봉송화 물들이기, 전래놀이 체험 동아리 기부 - 책 읽어주기, 공연 및 전시, 놀이 활동
학년 교육활동 지원	2학년 놀이 한마당 지원, 3학년 송편 만들기 지원, 4학년 성안길 탐방 지원
소통	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 협의회 및 간담회 참여, 생활 협약 실천, sns 및 설문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청주S초등학교는 2018년 학부모 참여 분야에서 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최근 5년간 (2015~2019) 학부모 임원 선출 시기를 전교어린이회장 선출 시기보다 앞당겨 운영해 전교어린이회와 무관하게 임원이 선출되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매주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달 학부모회 정기회가 열리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단일 사례의 독특성과 복잡성에 대한 연구이며, 중요한 상황들 속에서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방식이다(Stake, 1995). 이 연구는 청주S초등학교의 학부모가 학교 참여 활동 경험을 통해 학교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연구자는 사례연구의 분석 방법 중 Creswell의 분석 절차를 참고하여 사례 내 분석, 사례 간 분석을 사용하여 연구를 계획하고 분석하였다.

하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의 분석단위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를 내재설계(embedded design)라고 한다. 내재설계는 사례와 관련된 이론적인 하위요소들을 사전에 연구자가 인지하고 이를 통해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연구의

초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9). 하나의 단일사례 안에 있는 여러 사례에 대한 전형적인 분석 방식은 먼저 각 사례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그 사례 내의 주제들을 제시하고(사례 내 분석), 사례들에 걸쳐 있는 주제를 분석하며(사례 간 분석), 사례들의 의미에 대한 주장이나 해석을 하는 것이다(Creswell, 2019). 연구자는 사례연구의 분석 방법 중 Creswell의 분석 절차를 참고하여 사례 내 분석, 사례 간 분석을 사용하여 연구를 계획하고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는 표본 연구가 아니며, 다른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개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개의 사례를 이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본다. 사례연구의 본 목적은 특수화(particularization)이지 일반화(generalization)가 아니며 사례의 독특성을 강조하며 다른 사례들에 대한 지식에 적용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례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Stake, 2000). 이 연구는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공동체가 되기 위해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세우는 정책은 현재진행형이고, 청주S초등학교의 경우, 일반 학교보다 조금 더 빨리 학부모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S초등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능동적인 학부모의 모습을 추구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먼저 다른 학교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같은 환경을 제공 한다 해도 모두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듯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모습 역시 다른 학교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상황과 상황이 만들어내는 여러 우연적인 상황들과 그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여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했다.

2. 연구자

연구자는 청주S초등학교에 3년간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다. 2019년 둘째 아이가 1학년에 입학 하면서 육아휴직을 하였고, 청주S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상황은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학부모회 업무를 담당한 교사이자, 학부모회에 참여한 학부모라는 이중적 역할을 갖는다. 질적 연구에서는 사회현상의 복잡성과 의미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참여자(피연구자)에 대한 보다 깊은 관여와 상호 대화적인 의사소통이 강조된다(김영천, 2013). 연구자의 이중적 역할은 연구자로서 연구 참여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자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 입학식, 학교설명회, 학년 간담회, 동아리 활동 등에 학부모로서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학부모를 만나고, 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연구자가 처음 학부모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였을 때, 연구자의 위치가 교사이자 학부모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들과 연구자 모두에게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가 거둬지자 연구자는 교사가 아닌 학부모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 학교, 교사, 교육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구자에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정도로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다.

연구자의 주관성이 연구의 결론 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석적 연구에서는 보다 사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현상에 대해 연구자가 참여자로부터 얼마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했느냐보다는 얼마나 현상에 가깝게 다가 갔느냐하는 근접성의 정도가 타당도로 간주되기도 한다(김영천, 2013). 따라서 연구자는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이중적 지위가 이 연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자의 주관성이 이 연구의 자료 수집, 분석, 해석의 순환적 과정에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 성찰, 연구 참여자 내부 평가, 연구 자문 외부 평가 등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였다.

3. 연구 참여자

다양한 측면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 활동에 2019년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로, 학부모 참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부모회 집행부 학부모와 참여의 기회가 생기면 참여하는 일반 참여 학부모, 아버지회 활동을 계획, 운영하는 아버지회 학부모로 선정하였다. 표집 대상은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으로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회장과 먼저 연락을 취하여 허락을 구하고 학부모 중 조건에 맞는 학부모를 소개 받아 각 그룹의 대상이 선정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첫 만남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며 익명처리를 전제로 참여 동의를 받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비밀보장과 자료 보관에 관한 내용을 모두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일반 참여 학부모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학부모회 집행부로 활동한 경험은 없는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참여 학부모의 경우, 1년 미만 참여 학부모와 6년 이상 참여한 학부모가 골고루 섞여 있고 2019년 현재 학년 동아리 활동을 위해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이이다. 두 번째 그룹은 학부모회 집행부

학부모로, 학부모회 정기회를 통해 학부모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 역할을 하는 그룹이다. 학부모 회장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학부모회 집행부 활동을 해왔으며 집행부의 다른 학부모들 역시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학부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세 번째 그룹은 아버지회 학부모로 작년에 만들어진 신생 집단인 아버지회에서 2년째 임원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이다. 아버지회의 경우, 다른 학부모들과는 달리 오직 아버지회 활동에만 참여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모든 그룹은 2019년 현재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고 충분히 친밀감이 형성된 관계이다.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2019년 기준)

그룹	이름(가명)	성별	나이	직업유무	재학자녀	학교 참여 경험
일반 참여 학부 모	강윤희	여	47	유	초6, 초1	동아리, 학년 간담회
	김희경	여	39	무	초1, 초3, 초5	동아리, 학년 간담회
	나연지	여	41	무	초1	동아리, 학급 학부모 대표, 봉사단, 학년 간담회
	유정민	여	39	무	초1, 초3, 초6	동아리, 학급 학부모 대표, 학년 간담회
	이선재	여	42	무	초1, 초3, 초6	동아리, 학급 학부모 대표, 학년 간담회
학부 모회 집행 부 학부 모	김희주	여	37	유	초3, 초6	학부모 임원, 봉사단 임원, 수업도우미, 학년 간담회
	나정인	여	46	무	초4	학년 학부모 대표, 봉사단, 동아리, 수업도우미, 학년 간담회
	박소이	여	44	유	초6	학부모회 임원, 봉사단, 동아리, 수업도우미, 학년 간담회
	이유정	여	46	무	초5	학년 학부모 대표, 봉사단, 동아리, 수업 도우미, 학년 간담회
아버 지회 학부 모	권상진	남	44	유	초2	아버지회 임원
	이윤영	남	41	유	초2, 초5	아버지회 임원
	장주호	남	36	유	초1, 초4	아버지회 임원

4. 자료 수집

연구자는 3월부터 꾸준히 전체 학교 활동에 참여하였고, 9월부터 주 1회 학부모 동아리활동, 월 1회 봉사단 모임에 참여하며 관찰활동을 진행하였다. 관찰한 내용 중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노트(personal note)를 작성하여 기록하였고, 학부모 밴드를 통해 그간의 학부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학부모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회 담당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얻었고, 2015년 이후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부모관련 문서자료(2015~2019)를 수집하여 탐독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연구 참여자 그룹 별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룹 인터뷰 전에 그동안 경험한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간단한 개인설문을 먼저 진행하였고, 본 인터뷰는 반 구조화된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질문은 <표 3>과 같다.

〈표 3〉 인터뷰 질문

질문 항목	세부 질문
인적사항	이름, 나이, 성별, 직업유무, 재학자녀, 학교 참여 경험
참여 동기	학교 참여를 시작하게 된 계기, 학교 참여를 지속하게 되는 이유
참여 경험	기억에 남는 학교 참여 에피소드, 참여 중 긍정적인 경험, 참여 중 부정적인 경험,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필요성과 역할
행복씨앗학교의 특성	학교 참여시 느낄 수 있는 행복씨앗학교의 특성, '교육주체',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인식
기타	학부모 학교 참여의 개선점, 학부모 학교 참여의 지향 방향

심층 인터뷰는 일반 참여 학부모 그룹은 1시간씩 총 2회, 학부모회 집행부 학부모 그룹은 3시간 1회, 아버지회 그룹은 2시간 1회로 총 4회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인터뷰 후에는 인터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24시간 내에 전사 작업이 이루어졌고, 전사 내용에는 대화가 아니더라도 웃음, 침묵 등 심리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비언어적 부분도 함께 넣었다.

5.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참여관찰 자료(개인노트)와 심층 인터뷰 전사본, 학부모회 관련 각종 문서(연구물, 공문, 협의회 자료, 언론보도자료)를 통하여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표 4>의 코드 규칙에 따라 수집·정리 되었다.

〈표 4〉 자료 분류 코드

수집 자료	분류 코드	
인터뷰 자료	일반 참여 학부모 그룹	I-A-인터뷰 날짜
	학부모회 집행부 학부모 그룹	I-B-인터뷰 날짜
	아버지회 학부모	I-C-인터뷰 날짜
개인 노트	P-사건, 기록날짜	
관련 문서	N-제목, 연도	

이 연구에서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1차 작업으로 인터뷰 내용을 2회 이상 다시 들으며 전사 작업을 하였고, 전사 후 전사 자료를 천천히 반복하여 읽으며 의미를 생각해보았다. 2차 작업으로 전사된 내용을 각 사례별로 다시 정리한 후 의미 있는 지점에 메모를 넣는 작업을 하였다. 메모 작업은 2회 반복하며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하였다. 3차 작업으로는 연구 참여자 별로 사례 내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리된 주요 내용은 사례 간 분석을 통해 그룹별로 정리하여 그룹별 주제 목록을 만들었다. 4차 작업으로 그룹별 주제를 비교, 분석하여 범주화 한 후 그룹 간 분석을 통해 대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동일한 현상과 관련된 복합적인 자료 수집 경로(참여 관찰, 인터뷰, 개인노트, 문서)를 교차적으로 면밀하게 비교함으로써 분석 및 해석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고 학부모회 담당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학부모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배경을 듣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자료 해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식적·비공식적 대화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연구자가 자료를 타당하게 이해, 분석, 해석하였는지 점검하였고, 석사 이상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연구결과 및 해석, 논의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동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교사이자 학부모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청주S초등학교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연구의 자료 수집 및 해석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늘 경계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사례 내 분석(일반학부모, 학부모회 학부모, 아버지회 학부모)을 1차로 실시한 후, 사례 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그룹 내에서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각 그룹별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 주제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인식과 감정이라는 측면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에 대한 그룹 내 주제 분석

가. 일반 참여 학부모

앞에서 서술한 사례 내 분석 및 그룹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일반 참여 학부모 그룹에서는

학교 참여 경험과 관련된 72개의 주요 내용을 찾아낼 수 있었다. 주요 내용에서 유사점, 차이점, 인과 관계, 상위 개념을 분석, 추출하고 범주화 하여 12개의 주제를 도출해내었다. 분석한 주제를 표로 제시하면 <표 5>과 같다

<표 5> 일반 참여 학부모 그룹 분석 주제

주요 내용	소주제
1학년 입학 시키고 아는 게 없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참여 시작	자녀에 대한 관심에 의한 참여
학교의 공식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서	
어릴 때 내 부모가 참여하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아이가 참여를 원해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한 참여
학교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내 아이에게 마이너스는 되지 않겠지 하는 기대감	
시간도 많고, 친분도 쌓고 싶어 학교 활동에 참여	
동아리 활동이 내 관심사와 맞아서	요청에 의한 참여
학교에서 원하는 연수를 해주어서 즐겁게 참여	
학교에서 온 설문지를 안 써 낼 수 없어서 학부모회 가입	
아는 학부모에게 참여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참여	학부모의 참여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
참여 유도의 강압성은 학부모회가 가장 큼	
학부모가 주관해서 행사를 하면 많은 아이들이 좋아함	
학부모가 학교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아이가 안정감을 느낌	학부모가 느끼는 학부모의 불편한 모습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좋음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다음 행사도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강제적인 인원 동원에 수긍되는 면이 있음	
행사 글을 올려도 쉬쉬하고 전반적으로 호응이 너무 없음	어렵고 불편한 교사와의 관계
반모임 참여율은 저조한데, 만나자는 요구는 자주 있음	
간담회 때 학부모 몇 명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은 개인의 생각이라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듦	
간담회가 엄마들 불만 폭주의 자리	아이로 인해 '올'이 되는 학부모
몇몇 엄마와 선생님의 이야기 자리가 되면 나머지 엄마들은 시간 낭비	
선생님과 학부모의 언쟁은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함	
간담회를 통해 선생님과 친밀감을 느끼는 부모는 거의 없음	와 닿지 않는 주체라는 위치
학부모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까지 이해하기는 힘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엄마 입장에서는 선생님에게 따져 묻기 힘들	
담임 선생님을 자주 만나는 건 불편하고 좋지 않음	와 닿지 않는 주체라는 위치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고 싶음	
담임과 학부모는 서로 어려워해야하는 관계라고 생각함	
학교나 교사로 예상되는 참여 독려의 한마디로 인원 충당을 위해 사방으로 전화를 들림	와 닿지 않는 주체라는 위치
선생님 말을 주체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학부모는 얼마 없다고 생각함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함	
학부모가 느끼기에는 교사가 갑일 수밖에 없음	와 닿지 않는 주체라는 위치
충청북도 선생님은 고압적임- 엄마를 가르침	
교육 3주체라는 말은 지나가다가 책에서 본 것 같음	
혁신학교라는 것이 별로 와 닿지 않음	

학부모 의견도 반영되는 것 같지도 않고, 교육공동체 관련 변화도 잘 모르겠음	
학부모 참여가 학교 쪽에서도 필요하니 장을 만드는 것 같음	
학교도 교육청이 시켜서 그러는 것 같음	
학교는 능동적, 학부모는 수동적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함	
학교 참여는 전업주부에게만 좋은 것	내 아이만을 위한 참여에 대한 불편함
도우미 교사 할 때 내 아이에겐 네 엄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활동함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아이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낌	
학부모 참여시 내 아이만 챙기는 학부모는 보기 좋지 않음	
부모님이 오지 못하면 속상해 애들이 있어 내년엔 아이들끼리만 체육대회를 하기로 이야기가 나눔	학부모 임원을 맡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
학교 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애쓰는 몇몇 학부모들이 실제로 있고, 박수치고 응원함	
임원을 맡은 엄마들은 교육 받으러 교육청도 들락거려야 함	
학부모회 하려면 엄마가 자차가 있어야 한다는 소문	
임원은 새로 들어오는 1학년 못모르는 엄마들이 맡으면 되므로 임원 선출 시 기존 학부모들은 빠져도 된다고 생각함	
임원진 학부모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이 많음	
학부모 대표가 부담스러워 자녀에게 1학기 반장은 나가지 말라고 함	
학급 엄마들은 학급대표를 의지하기도 하고 대표를 교사와의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	
만날 장소부터 만남 주선까지 반대표 엄마로 부담감이 있음	
누군가가 총대를 매주면 나는 잘 참여할 수 있음	
직책을 맡는 것이 부담스러워 학기 초에 학교 모임에 안가기로 함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도 정신적으로 힘들	
연락처가 공개되고 활동을 하니 눈에 빠진 것 같음	
1년을 여기 저기 쫓아다닌 결과 내년에는 쉬고 싶음	
학부모들이 원하는 소통은 적시적기의 정보 제공만으로도 충분	
한명씩 돌아가며 말하는 간담회 분위기가 싫고 부담스러움	
조용히 듣고만 싶음, 말하는 엄마들에게만 들었으면 함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야기까지 듣는 건 시간낭비라고 생각함	
간담회는 부담스러운 분위기	
허례허식처럼 느껴지는데 굳이 학부모가 발언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듦	
간담회 참여하고 괜히 왔다고 생각함	
1학기에 참석해서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면 2학기에는 참석하지 않음	
간담회는 내 생각을 온전히 말하기 힘든 자리	
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 참여에 발길을 끊는 엄마들	
간담회에 참여해도 학부모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게 됨	
선생님의 이미지 - 안됩니다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과 학교의 사건은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간담회 갔더니 모르는 이야기를 나눠서 당황함	
학부모 의견을 이야기해도 벽에 막혀 나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음	
토론 주제에 대해 발언을 해도 학교는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함	

나. 학부모회 집행부 학부모

학부모회 집행부 학부모 사례 내 분석 및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학부모회 집행부 학부모 그룹에서는 학교 참여 경험과 관련된 88개의 주요 내용을 찾아낼 수 있었다. 주요 내용에서 유사점, 차이점, 인과 관계, 상위 개념을 분석, 추출하고 범주화 하여 12개의 주제를 도출해내었다. 분석한 주제를 표로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학부모회 집행부 학부모 그룹 분석 주제

주요 내용	소주제
담임선생님이 두 번이나 바뀌면서 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함	자녀에 대한 관심에 의한 참여
담임선생님에 따라서 학교 참여가 달라질 수 있음	
큰 아이가 임원을 맡자 주위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참여함	
아이에게 관심을 더 많이 두기 위해 학교에 참여함	
학교에서 오라는 날 만 갔는데도 자주 오는 엄마가 되었음	
작은 아이가 6학년 어린이회 임원이 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함	
학교 참여 이유는 내 아이가 더 잘되라고 돕기 위한 것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한 참여
동아리 활동을 위해 참여함	
친분을 쌓기 위해 참여함	
참여하다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 계속 참여하게 됨	변화하는 내 아이들
원래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참여함	
엄마가 학교에 오니 아이가 더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변함	
임원을 맡으니 아이도 실패해도 임원에 계속 출마하는 적극성을 보임	
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음	
도우미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뿌듯한 시간을 보냄	
학교에 자주 오다보니 학교에 오는 게 쉬워지고 선생님들도 덜 어려워짐	
학교에 다니니 들어오는 정보가 많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면서 학교가 낯설어지지 않음	
교사-학부모 행사를 통해 돈독해지는 것을 느낌. 반면 반대의 느낌도 받음.	
학교를 들여다보니 선생님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함부로 아이말만 듣고 클레임을 걸지 않음.	
궁금한 점을 물어주는 학년 설명회에 만족	
간담회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음	
혁신학교라서 동아리를 많이 해야 함	
학부모회의 강요로 학년별 동아리가 만들어짐	
글을 올려도 호응이 없음	
매년 바뀌는 집행부 구성원으로 인해 어려움	
상처가 돼서 그만두기도 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만두기도 함	
학부모 참여 인원이 점점 줄고, 단합이 잘 안되어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임	
소통을 하려면 학급대표, 학년대표 모두 필요	혁신학교이기에 더 잦은 학교 참여와 학부모회 운영의 어려움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행사시 인원 총당이 주	아이 때문에 학부모로 말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위치
작년에 학급, 학년 모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시스템을 만들어봤으나 잘 안됨	
학부모회 활동을 전수해야 하는데 전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아쉬움	
유지하려면 희생할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함	
참여 하는 사람만 계속 참여하는 것이 문제	
학부모 참여가 별로 없는 학년에서 모임을 꾸려나가기는 힘들	
학부모 임원의 일이 생각보다 많음	
회장직은 한해하면 소진이 와서 2년 하기 힘들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말해야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안 가는지 잘 모르겠음	
누가 담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히 큰 일이 아니면 목소리를 내지 않음	
도우미 교사 활동 시 교사와 차별 받는 경험을 함	참여 활동을 하며 경험한 교사의 무시와 차별
학부모라서 이런 대우를 받나하는 생각을 함	
학교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었는데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음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봉사를 지시하는 듯 한 교사의 말 한마디로 봉사가 비자발적인 노동이 되는 느낌을 받음	
교사에게는 아무 말 못하고 집에 가자고 이야기함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함	
2학기에 전체 학부모회에서 학부모회 존폐와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할 예정	불확실한 주체로서의 위치와 학부모회 존폐에 대한 고민
학부모회가 없어지는 것은 안타까움	
학부모회가 없다면 교육3주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	
참여하다보면 어디까지가 교권침해인지 잘 모르겠음	
학부모는 주체가 아니라 민원인인 듯 한 느낌을 받음	
요구사항을 말하고 싶어도 민원을 넣는 것 같아 말을 못하겠음	
말에 따른 책임이 무서워 말을 못하겠음	
학교에서는 자꾸 참여를 시키려고 하지만 실제 세 주체의 무게는 다르다고 생각함	학부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장치가 필요
행복씨앗학교는 세 개의 공동체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학부모회 관련 법조항이 명확히 생겼으면 하는 바람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행복씨앗학교 학부모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음	
참여를 하다 보니 새로운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	
자기 부모가 못 온 아이들이 마음에 걸림	
못 오는 학부모의 자녀는 주눅 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	
그 아이들을 더 예뻐해 주고 옴	
참여하는 경우 동네 아이들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줌	
직장 맘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함	
가면 내 아이보다 다른 아이를 신경써주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속상해하는 것 같음.	
속상해 하는 아이들을 보며 학부모 활동을 계속 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짐	참여와 소통의
학교를 너무 자주 가니 선생님의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이 곱게 들리지	

않음	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와의 거리감
선생님이 자신을 편하게 해주셨으면 하지만, 그러지 않음	
선생님들이 학부모는 불만을 말하는 존재로 인식	
교사의 말 한마디, 말투로 오해가 쌓임	
학부모 모임에 부정적인 교사가 있으면 모임이 잘 되지 않음	
학급대표를 뽑아달라고 선생님에게 부탁했으나 들어주지 않음	
선생님의 권력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함	
간담회는 모이기는 했지만 그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님	
간담회가 의미 있는지 고민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하는 것이 일이 되는 것 같음	
간담회에 대한 만족도가 서로 높지 않음	참여와 소통의 과정에서 느끼는 학부모에 대한 아쉬움
내 아이를 잘 키워놔도 내 아이를 해코지 하는 것은 다른 아이라 같이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들이 참여를 잘 안함	
클레임 거는 엄마들에 대해 공감하지 못함	
참여 하지 못하는 엄마들을 이해 못함-노력부족	
돈 버는 것보다 내 아이를 잘 키워야지 하는 엄마들의 마인드가 필요	
학교 참여 학부모가 늘어났으면 좋겠음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참여하지 않아 의아함	
참여하지 않는 엄마들은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라도 참여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특히 전업주부인데 안 오는 엄마들)	
학부모 활동을 안 한 학부모가 간담회 때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함	
간담회시 일부 민원 학부모 때문에 학부모도, 교사도 스트레스	
다른 혁신학교는 규모도 작고 간담회를 자주 열어 툭툭 튀어나올 게 없으나 우리 학교는 1년에 한두 번 만나니 그 자리가 불만을 말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음	
간담회 분위기는 청문회 분위기	
간담회는 선생님들 잘못을 책망하는 자리처럼 느껴짐	
간담회에서 어머니들이 에티켓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	

다. 아버지회 학부모

아버지회 학부모 사례 내 분석과 그룹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아버지회 학부모 그룹에서는 학교 참여 경험과 관련된 63개의 주요 내용을 추출해낼 수 있었다. 주요 내용에서 유사점, 차이점, 인과 관계, 상위 개념을 분석, 추출하여 범주화하고 10개의 주제를 도출해내었다. 분석한 주제를 표로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아버지회 학부모 그룹 분석 주제

주요 내용	소주제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참여하지 않으면 자녀가 실망할까봐 참여 교사와 친해지면 내 자녀를 한번 더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참여 아이를 예뻐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회를 하면 신경은 더 써주지 않을까	자녀에 대한 관심에 의한 참여

하는 마음	
첫 번째 목적은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아버지가 참여	
아이가 어릴 때 아이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싶어 참여	
일부러 인맥을 위해 들어오는 아버지회 회원도 있음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참여
배우자의 권유로 참여	요청에 의한 참여
참여하면서 직업에서도 서로 도움 받고, 도움 주며 공존하는 삶이 좋음	
남자들 간의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됨	
싸웠던 아이들이 캠프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감동 받음	
아이를 중심으로 만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과 친해져도 함부로 하거나 하지 않음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의미 있는 관계
아버지회를 통해 학교폭력까지 갈 수 있었던 사건이 따뜻하게 마무리 됨	
아버지회를 통해 아이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	
마을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래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음	
아버지회는 강압적으로 해야 모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함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버지회 구조와 목적의 부재
아버지회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함	
아무 경험 없이 시작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음	
학교 측에 아버지회를 만든 목적을 물어보고 싶음	
아버지회가 주체가 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함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	
아버지회의 앞으로 방향에 대한 숙제는 학교와 함께 풀어나가고 싶음	방향을 점검하여 함께 가기 위해서는 소통 필요
학교에 아버지회의 위치와 방향을 물어보고 싶음	
제멋대러가 아니라 학교라는 틀에 맞춰서 가고 싶음	
그러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감선생님을 만나서 내년 준비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함께 공유하고 싶음	
학교가 인원모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명단을 주자 섭섭한 마음이 듦	
담당 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속상함	
2년차 아버지회는 학교 측의 도움을 받으며 진취적으로 하고 싶었으나 학교의 소극적인 반응에 마음이 상함	
교감선생님과의 면담 때 아버지회가 안정기에 들기까지는 학교의 도움이 필요하다 요청함	
교감선생님의 부정적인 말에 섭섭하고 화가 남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에 학교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해야 하나 의구심이 생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학교와의 갈등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도움이 안된다면 내년에는 해나갈 수 없고 생각함	
학교의 태도에 따라 아버지회 존폐가 결정될 예정	
학부모회와 차별 받는 느낌	
아버지회를 오래된 학부모회와 같은 잣대로 보고 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학교 측에서 아버지회 이야기를 들어주고 활동에서 좀 더 빠르게 피드백해주시기를 바람	
학교와 학부모는 공생관계. 놀이터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	

‘활성화 시켜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서포트하는 정도로 그쳤을 텐데, 그 말로 인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부족함	함께 행사를 진행하면서 생긴 학부모회와의 갈등
캠프 후 평가회에서 이번 행사를 아버지회에 떠다 민 듯 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옴	
내년에는 아버지회도 서포트만 하자는 의견이 나옴	아버지회 행사를 하며 느끼는 소속감과 뿌듯함
협의 과정에서 학부모회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	
서로 불만이 있으나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이 상한 상태로 마무리 됨	
아이를 위해 아버지회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에 뿌듯함을 느낌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안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힘들지 않음	
행사를 하면 내 아이가 즐거워해서도 좋지만 모든 청주S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즐거워해줘서 뿌듯함	아내 확보의 어려움과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첫해 임원이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열심히 하게 됨. 책임감이 생김	
아버지회 행사 후 아이가 다음에 또 할 거냐고 물어보는 데서 뿌듯함을 느낌	
아이도 개인적인 행사보다 학교라는 소속 안에서 하는 행사를 더 의미 있게 생각함	
올해 회원 모집을 위해 4월부터 열심히 행사를 진행함	
매년 아버지회 인원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시작함	
아버지회 회원 모집이 안됨	
작년에 하던 멤버 말고 나머지 멤버와는 소통이 잘 안되어서 섭섭함	
회원이 있어야 신이 나서 할 수 있음	
회원이 없어 내년이 고비라고 생각	
아버지회 규모가 커지면 학교 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아버지회 밴드에 글을 올려도 회원들은 눈팅만 하고 적극적이지 않음	
행사 참여율이 낮다보니 아버지회 홍보가 안됨	
모든 행사를 해도 어차피 늘 나오는 인원만 나오니 학교 이름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음	

2.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에 대한 그룹 간 주제 분석

각 그룹 간 사례 분석을 통해 나온 주제들의 유사점, 차이점, 인과 관계, 상위 개념을 분석, 추출하여 그룹 간 사례 분석을 실시한 결과 23개의 소주제와 7개의 대주제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학부모 그룹 간 주제 분석을 표로 제시하면 <표 8>와 같다.

<표 8> 학부모 그룹 간 주제 분석

소주제	대주제
자녀에 대한 관심에 의한 참여	끊임없는 학교의 초대에 응하기: 다른 이유, 같은 시작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한 참여	
요청에 의한 참여	
학부모 참여로 성장하는 내 아이와 ‘남’의 아이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 공동체의 삶으로 한걸음 내딛기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의미 있는 관계	
학교 참여를 통해 구성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아버지회 행사를 하며 느끼는 소속감과 뿌듯함	
내 아이만을 위한 참여에 대한 불편함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여전히 ‘을’: 교육공동체가 되기 어려운 학부모와 교사
아이로 인해 ‘을’이 되는 학부모	
참여 활동을 하며 경험한 교사의 무시와 차별	같은 학부모? 나와 다른 학부모: 학부모가 불편한 학부모
참여와 소통의 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와의 거리감	
학부모가 느끼는 학부모의 불편한 모습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참여: 학부모가 나서지 않는 학부모 모임
참여와 소통의 과정에서 느끼는 학부모에 대한 아쉬움	
함께 행사를 진행하면서 생긴 학부모회와의 갈등	어쩌다보니 교육주체: 학교의 일방적인 지위 부여
학부모회 임원을 맡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	
인원 확보의 어려움과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들에 대한 섭섭함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으로: 교육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
혁신학교이기에 더 잦은 학교 참여와 학부모회 운영의 어려움	
와 닿지 않는 주체로서의 정체성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버지회 구조와 목적의 부재	
불확실한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학부모회 존폐에 대한 고민	
학부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장치 필요	
방향을 점검하며 함께 가기 위해서는 소통 필요	

가. 끊임없는 학교의 초대에 응하기: 다른 이유, 같은 시작

청주S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학부모와 공동체로 가기 위한 노력으로 꾸준히 학부모를 학교로 초대하고 있다. 학교의 계획이나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지는 학부모 연수, 매 학기 학교 설명회와 연 1회 이상의 학년 간담회, 학부모회와 다양한 학부모 동아리, 3주제가 함께 하는 토론회 등 학부모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학교에 드나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장이 펼쳐져 있다. 청주S초등학교의 이러한 초대에 응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 참여를 시작하였다. 자녀에 대한 관심, 개인의 이해관계, 다양한 주체의 요청에 의한 학부모들은 학교 참여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나마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얼굴을 좀 익히면서 우리 아이를 조금이라도, 한번이라도 봐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I-C-2019.10.11. 권상진 인터뷰 자료)

전 동아리는 밴드에서 소개된 것 보고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어, 그냥 내 관심사니까 참여를 하게 됐고 나머지는 특별히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I-A-2019.9.24. 강윤희 인터뷰 자료)

되게 인맥이 좋아졌다. 남자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일부러 또 그렇게 들어오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도로 티 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I-C-2019.10.11. 권상진 인터뷰 자료)

학교 참여 할 때 설문지 같은 거 돌리잖아요. 차마 안 써낼 수는 없고 처음에 큰 애 스타트를 해가지고 밑에 동생들은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더라구. (I-A-2019.9.24. 이선재 면담 기록)

대부분은 어머니들께서 억지로 써서 내서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은 되더라구요. (I-C-2019.10.11. 이윤영 인터뷰 자료)

홍송이(2016)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대해 학부모들이 처음에는 외적 동기에 의해 촉발되어 학교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로부터 부여받은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면화하게 되므로, 점차 내적 동기에 의한 능동적인 참여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 다양한 동기에서 시작한 학교 참여 활동이지만, 이는 길게 보았을 때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촉발점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 공동체의 삶으로 한걸음 내딛기

많은 학부모들이 내 아이의 학교 생활을 보고 싶어 하고 아이의 학교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그리고 실제 학교 참여를 통해 그 부분을 충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도 함께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학교가 살짝 엄마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 수업 같은 게 많으면 내 애가 무얼 하나 한번은 가서 살펴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I-A-2019.9.24. 나연지 인터뷰 자료)

이제 그런 때 가서 송편 만들거나 성안길이나 뭐 이런 걸 해주면서 아이 뿐만 아니라 저도 좋은 거예요. 뿌듯하고. (중략) 조금 더 아이들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I-B-2019.9.27. 나정인 전사자료)

가장 기쁘고, 좋고, 뜻깊었던 거는 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활동 하면서, 저희 아이도 물론 기쁘고,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좋지만, 우리가 이런 아버지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가족과 다른 청주S초등학교 모든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I-C-2019.10.11. 권상진 인터뷰 자료)

처음에는 내 아이를 위해 시작한 활동이 결국에는 모든 아이를 위한 활동이 되는 경험을 하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모두가 함께 하는 참여활동에서 여전히 내 아이만 보는 일부 학부모에게 불편감을 느끼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김성한(2018)은 학교 참여 학부모들 중 여전히 내 아이만을 챙기는 학부모가 있고, 그런 학부모를 보는 다른 학부모의 시선이 곱지 않고, 이는 학부모들도 학교교육 참여가 반드시 내 아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전체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선재: 아니, 0학년. 작년에 0학년 전래 놀이 그런 걸로 했다가, 선생님이 코스별로 있으니까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을 했는데, 없는 애들은 계속 엄마 없다고 그러고 학부모 온 엄마들은 선생님이 분명히 자기 자녀한테만 신경 쓰지 말고 하렸는데, 몇 명 엄마들이 자기 애들한테만 딱 달라 붙어가지고 고모들 애들이 놀고 있는데, 자기 아들 못했다고 다른 애들 하는 걸 자기아들 하라고 갖다 주는 그런 엄마들이 있었어요.

유정민: 난 우리 애들 내뺐겨쳤는데.

이선재: 나도 오늘은 엄마 아는 척 하지마.

유정민: 난 오늘 너네 엄마 아니야.

(I-A-2019.9.24. 일반 참여 학부모 그룹 인터뷰 자료)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들도 학교 활동에 참여했을 때 내 아이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를 챙겨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고 있었다.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적인 활동이 아니라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부모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참여 학부모들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윤진(2019)은 학부모가 학교 참여 활동을 하며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 과정을 직접적으로 목도함으로써 내 자녀만 바라보는 학부모에서 벗어나 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시야 확대의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경험은 긍정적인 의미가 크다고 이야기한다. 학교 참여를 통해 내 아이 이외의 다른 아이들을 보게 되면서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의 학교생활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만남은 학부모에게는 학교와 동네에서 내가 아는 아이가 늘어나는 경험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내가 아는 언니 오빠가 늘어나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만남이 마을로 확장되며 조금 더 넓은 개념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걸 만들고 나서 학교에서는 정말 말썽 피우는 아이들이 엄마 주겠다고 그런 아이들이 챙기더라고요. 챙기는 건 말썽 안 피우는 아이보다 말썽 피우는 아이들이 엄마 주겠다고 그렇게 싸는 걸 보고 놀랐어. 다 말썽 피우는 아이들이 싸더라구. (I-B-2019.9.27. 나정인 인터뷰 자료)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연지씨가 00이 이야기를 꺼냈다. 며칠 전에 헐레벌떡 신호등 앞으로 뛰어 오길래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혹시 뒤에서 나쁜 사람이 쫓아오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 함께 신호등을 건넜다고 했다.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교사였던 내가 느낄 수 없었던, 이어짐 같은 것이었다. 아, 내 아이를 나만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챙겨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구나. (P-2019.10.8. 학년동아리 모임, 연구자 개인노트)

이들이 학교에서 아빠, 나 누구 만났어. 어떤 오빠 만나고, 어떤 언니 만났어. 이런 식으로 하니깐. 요즘은 언니 오빠랑 인사도 하고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I-C-2019.10.11. 장주호 인터뷰 자료)

이현아(2014)는 아버지의 학교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고, 지역 사회가 하나의 마을로 되살아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였다. 청주S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효과가 개인과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사회 공동체 만들기에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여전히 ‘을’: 교육공동체가 되기 어려운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심리적인 위계가 존재한다. 학부모가 느끼는 이 위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학부모 자신을 ‘을’로 느끼게 한다. 이러한 심리로 인해 학부모와 만났을 때 교사의 말 한마디는 커다란 힘을 가진다. 특히 학부모가 자신의 위치를 ‘보조자’나 ‘조력자’로 인식할 경우, 그 말은 더 큰 힘을 발휘 한다. 학교 행사를 위한 인원 동원 요구는 학부모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학교 측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촉발되었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부모가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엄마들이 갑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생님이 확실히 갑이시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누가 담임이 되실지 모르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얘기, 되게 크게만 있을 때가 아니고는, 그럴 때만 목소리를 한번 내지, 웬만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I-B-2019.9.27. 나정인 인터뷰 자료)

강윤희: 누가 인원수 채우랬어,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선재: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야 되진 않겠냐.

나연지: 참여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진 않겠냐? 요 소리가 이제 가장 포인트예요.

강윤희: 그거는 아무래도 어느 선생님들 쪽에서도 학부모 쪽에서도 그 선에서 서로간의 이야기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몇 명 채우세요는 아니겠지만 어머님들이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일을 하시는 분한테는 아, 채워야 된다.

나연지: 참여 독려의 한마디가 이렇게 불씨가 되가지고 결국 소수의 엄마들까지.

이렇게 본인을 ‘을’로 인식하게 되면 조력자로서 함께 하는 자신을 교사가 부당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기도 한다. ‘을’이라는 위치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위치가 아니라, 봉사를 강요당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을’의 입장이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내년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우리도 이렇게 봉사단을 봉사를 하면서 토요일날 나가서 물준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때는 8시에 만나서 물을 주고, 9시가 넘었는데, (중략) 선생님이 물 다 줬다 하니까 해바라기를 저쪽으로 옮겨 심으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게 봉사가 아닌데, 이게. 그래서 그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봉사가 내가 막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까 하게 된 건데, 이 시간에 나와서 고생하시네요 이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가자고 그랬어. 우리가 뭐 저기야, 가자. 밥 줘야지.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을 좀 안하시는 거 같애. (중략) 아,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I-B-2019.9.27. 나정인 인터뷰 자료)

황철형, 최류미, 김대현(2019)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대해 교사는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인정하지만, 그 범위는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고 학교에서의 만남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참여한 학부모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간의 이러한 교사들의 분위기가 학교 참여를 오래 해 온 학부모에게도 영향을 주어 학부모로 하여금 교사가 학부모 참여를

환영하지만은 않는 구나하는 느낌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알림장 보내주고, 그리고 챙겨주고, 지각하지 않게 보내주고, 아침밥 먹고. 학교에 와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정으로서 엄마 역할, 아빠 역할만 제대로 해줘도 난 학부모 역할 충분히 했다고 봐요. (교사 J)

(N-달콤쌉쌀 학교성장 보고서, 2018)

청주S초등학교가 행복씨앗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참여 활동에 대한 생각은 교사마다 다르다.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학부모 참여활동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해의 학부모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교육 3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사의 인식이 다르고, 학부모의 인식이 다른 데에서 나온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두 주체간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기에 나온 결과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행복씨앗학교라는 게 뭔지 아시고,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일부러 배정받아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참여를 싫어하시는지, 그게 엄마들은 막 하고 싶어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은 안되더라구요. (I-B-2019.9.27. 이유정 인터뷰 자료)

하지만 항상 ‘을’로 자신을 인식했던 학부모가 간담회에서는 ‘갑’이 되기도 한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가 공개적으로 교사를 책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교사를 두고 청문회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참여한 소통의 자리는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가 된다.

순간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학부모데 내가 무슨 권리로 선생님을 그렇게 추궁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게 학년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게 되게 불거지는 것 같아요. (I-B-2019.9.27. 이유정 인터뷰 자료)

김장철(2017)은 교사와 학부모는 갈등 상황에서는 각각 본인을 ‘을’이라고 인식하는 ‘을(乙) 대 을(乙)’ 상황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두 주체 모두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청주S초등학교 역시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부모, 교사 모두 본인을 ‘을’로 인식하는 상황이 일어났고, 이는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간담회에서도 학부모가 늘 ‘갑’의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는 좌절

또한 경험한다. 소통하자고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용기 내어 말을 해도 학교의 원칙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쳐 반영이 되지 않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을 통해 학부모는 소통의 자리가 그저 형식적인 자리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어디까지 꺼내야 교권침해가 아닌지, 어떻게 말해야 민원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으로 학부모가 의견을 내는 것은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 때는 내가 느꼈던 건 선생님들한테서 벽을 많이 느꼈거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원론적인 생각들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녹음기 틀어 놓 거 같았어. 그럼 굳이 이 자리를 왜 만들었나 싶은 거야. 부모들 입장에서서는 그렇게 학교 활동을 하고 이럴 때에는 우리도 발언권을 갖기 위해서 나간 건데. (I-A-2019.9.24. 강윤희 인터뷰 자료)

학교에서는 그거(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중략) 어디까지가 교권침해인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선생님하고 대화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지요. (I-B-2019.9.27. 나정인 인터뷰 자료)

뭔가를 얘기를 하기, 또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민원인? 같은 주체가 아니고 민원인 같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싶으나 못하겠는? (I-B-2019.9.27. 김희주 인터뷰 자료)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상황에서 학부모가 ‘을’이라는 인식과 학부모 교육 참여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학부모와 교사의 교육권 충돌이 충돌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 경험이 누적되며 교사와 학부모간의 가까워지지 않는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같은 학부모? 나와 다른 학부모: 학부모가 불편한 학부모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학부모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각각 크고 작게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답답함이나 서운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속상함을 동반한 ‘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아버지회의 경우, 학부모회와의 행사 조율 과정에서 무시와 차별을 경험했고 이는 그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고 학부모회와의 행사를 기피할 정도의 갈등으로 남게 되었다.

아, 정말 화가 나가지고, (중략) 뭘 하자는 건가. 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학부모회에서든 당연히 우리 쪽에 뭔가에 불만이 있으셨겠죠. 이거를 하나 얘기가

없어요. 서로 간에. (중략) 학부모회랑은 저희랑은 조금 공존이 안됐던 것 같고.
(I-C-2019.10.11. 장주호 인터뷰 자료)

이기석(2018)은 모든 학교 참여 학부모는 공통적으로 학부모 집단의 형성과 네트워크,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을 겪으며 그 과정에서 개별적 어려움도 체감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는 학부모로서의 사회화 과정으로 이러한 학부모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질집단으로 보이는 학부모 집단 내에서도 그룹 간, 개인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경험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낳기도 했다. 소통의 자리인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다른 학부모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몇몇 학부모의 계획되지 않은 개입으로 인해 모두의 소통의 자리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가 오고가는 자리가 되는 경험 때문이었다.

어떤 경우는 그냥 개인적으로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야 할 것을 공론화시키고 (중략) 듣다 보면은 답답한 경우가 있지. 왜 굳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야 되나 하는 경우도 많고, 나는 이것 들으러 온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중략) 엉뚱한 이야기로만 자꾸 길게 가니까. (I-A-2019.9.24. 강윤희 인터뷰 자료)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예절도 무시한 채 불만과 민원을 이야기하는 일부 학부모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학부모에게도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왔다. 학교 참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부모회 집행부 학부모들은 이런 학부모들을 ‘활동을 잘 하지 않는 학부모’로 이야기하고 ‘활동을 자주 하는 학부모’와는 다른 집단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을 자주 하는 학부모’라면 학교의 교육 철학을 이해하고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할 이야기를 구분해서 발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부모회 집행부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 학교 참여를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학교 참여의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간, 학부모 활동을 하신 분들은 이런 간담회 자리와 선생님과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을 구분을 하는데, 활동을 잘 안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리 처음 오신 분들이 약간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I-B-2019.9.27. 김희주 인터뷰 자료)

학교에 이렇게 참여하는 엄마들은 (학교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그런 크레임은

안거셨을 것 같고. (I-B-2019.9.27. 이유정 인터뷰 자료)

좋은 게 있으나 우리 학부모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해주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참여를 해주면 운영이 되는데, 나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I-B-2019.9.27. 김희주 인터뷰 자료)

최윤진(2019)는 학부모들 사이에도 ‘활동가 학부모’와 ‘일반 학부모’ 사이에서 참여 수준과 역량, 처지나 입장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을 때 학부모들 사이에 괴리와 단절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폐쇄적 파벌화를 낳을 우려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주S초등학교 역시 학교 참여 과정에서 학부모들 간에 다양한 갈등이 드러났고, 이는 파벌화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마.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참여: 학부모가 나서지 않는 학부모 모임

일반 참여 학부모의 경우,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 모임에 나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진다. 많은 학교에서 그렇듯 청주S초등학교 역시 학기 초에 학부모 모임의 대표를 뽑기 때문이다. 학부모 대표직을 꺼리는 이유는 각 그룹의 학부모 대표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부터, 의견을 수렴, 함께 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까지, 학부모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고, 그 일은 특별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인식 또한 이런 자리를 회피하게 하는 데 한 몫을 한다.

몇 년 지난 엄마들은 아, 요 모임은 지목을 당하는 모임이구나 감이 오니까 빠지는 거야. 항상 첫모임은 안가. 거기 이름 올려도 첫모임은 안가. (I-A-2019.9.24. 강윤희 인터뷰 자료)

몇몇 학부모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애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 보면서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용히 뒤에서 박수만 쳐주지요. 잘한다. 잘한다. 이려고. (중략) 학부모회 하려면 엄마가 자차가 있어야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면 반차를 내서라도 갈 수 밖에 없는 거야. (I-A-2019.10.1. 강윤희 인터뷰 자료)

열심히 활동하는 대표엄마들한테는 엄마들이 의지를 해요.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내 아이와 연류가 됐을 때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급 반대표 엄마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상의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가 지나치면 당신이 학급대표니까

뭔가를 좀 해달라하고 요구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급 대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I-A-2019.10.1. 강윤희 인터뷰 자료)

열심히 활동한 만큼 학부모 대표의 소진도 빨리 온다. 몇몇 학부모에게 편중된 부담이나 구성원들 간의 갈등,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한해 활동을 하고 그만 두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된다. 청주S초등학교의 경우 전교 인원이 1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학부모회 집행부의 인원은 20명 남짓이고, 매월 진행되는 학부모정기회도 10여명 정도가 모이면 많이 모였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특히, 집행부 학부모들은 하나의 직책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급 대표를 기본으로 학년 대표와 집행부직을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도 있어 맡은 직책의 무게가 가볍지만은 않다.

아버지회도 마찬가지이다. 임원을 맡고 있는 세 명의 주도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10여명 선에서 함께 참여를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사를 계획하고 함께하자고 요청했을 때 학부모들이 협조적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해준다면 소진이 덜 할 텐데, 그 조차도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 학교 참여 학부모들은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일반 학부모들의 경우, 학부모 활동을 한다 해도 각자의 생활이 있고, 우선 순위가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 활동에 대한 요청을 일순위로 놓고 활동하기란 쉽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대표 엄마들이 무슨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거 하면 다 그런 글을 올리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쉬쉬하는 거죠. 그런 거부터 힘들고. (I-A-2019.9.24. 김희정 인터뷰 자료)

회원이 있어야 뭘 하지, 신이 나서. 이게 우리 놀자 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활동을 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I-C-2019.10.11. 이윤영 인터뷰 자료)

새로운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 활동은 늘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게 되고, 이는 이 활동이 진짜 학부모 활동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학부모 모임의 존폐까지 생각하게 한다. 김은영, 권순범, 이강이(2018)는 학부모의 학부모회 인지도 및 참여 관련 요인 분석 연구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부모회 인지도는 약 87%인 것에 비해 참여율은 약 19%로 나타났고, 학부모가 학부모회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학부모회 활동의 필요성이나 관심에 대한 인식 수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 등에 따라 참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용미(2017)는 혁신학교에서 여전히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매우 낮지만, 이것은 학부모 활동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이며 학부모회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교육적 지향을 제시하는 것이면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 어쩌다보니 교육주체: 학교의 일방적인 지위 부여

청주S초등학교는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세우기 위해 처음부터 ‘당신은 교육주체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시적으로 강력하게 주지는 않았다. 학교 참여를 시작으로 학교와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며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바라며 학교에 끊임없이 초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이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참여 학부모의 경우에는 교육공동체나 교육주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생소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나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한테 협조 요청하시는 게 참 많아요. 다른 학교 얘기 들어보면 엄마들이 놀래. 다른 학교에서는 엄마들 만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데, 이 학교는 왜 이렇게 자주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오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I-B-2019.9.27. 나정인 인터뷰 자료)

연구자: 우리 학교에서 교육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은 알고 있으세요?

이선재: 저기 뭐야, 와 닿는 건 없어요. 크게 와 닿는 게 없어.

연구자: 그러면은 ‘교육 3주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나연지: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왜 아침에..

(I-A-2019.10.1. 일반 참여 학부모 그룹 인터뷰 자료)

그리고 학부모 참여에 대해서도 여전히 학교가 시켜서 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는 학교가 만들어 놓은 자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스스로 나서서 할 학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참여 활동에 대해서도 학교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학교 역시 아마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반 참여 학부모의 경우, 누가 원하는 학교 참여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이 학부모의 요구는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학부모를 교육활동의 조력자로 생각하는 입장이 크게 작용 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그저 지원해주는 역할이기에 학교가 필요하면 부를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생각으로 분석된다.

학교 참여가 학부모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학교 쪽에서도 필요하니까 이런 거를 유도를 하는 거 아닐까요? 학교에서 필요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학부모는 약간 수동적인, 그러니까 학부모의 학교 참여라는 것은 학교 측에서 능동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I-A-2019.10.1. 강윤희 인터뷰 자료)

이에 반해, 학부모회 집행부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세우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주체라는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 참여 활동 자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활동 유지에 대한 고민, 참여 인원의 부족, 참여를 보는 좋지 않은 시각으로 인해 학부모회를 계속 운영해야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학부모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저쪽 서울권이 나 경기권 이런 데는 아예 안하는 데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도 듣고 하나니까. 이것을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렇게 계속 활동 하면서 선생님들도 약간 반반이잖아요.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고. 그런걸 보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I-B-2019.9.27. 김희주 인터뷰 자료)

이는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학부모회나 교육주체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소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충분한 소통 없이 교육주체라는 자리에 서게 된 학부모는 교사와 끊임없는 눈치계임을 하게 되었고, 학교 참여의 방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부모 활동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학부모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약간 좀 아이러니 한 게 약간 우리 혁신학교도 3주체 강조는 하는데...(중략)... 힘든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활동이 아니면 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거를 그냥 참관수업 때 잠깐 보고 오는 것과 활동을 같이 하는 거는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느끼는 것도 그렇고. (I-B-2019.9.27. 김희주 인터뷰 자료)

아버지회 학부모의 경우에도 학교가 아버지회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회가 그저 학교나 학부모회에서 하던 일을 떠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느낌도 들고, 아버지회를 만든 학교도 소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느껴지니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할지 방향을 잡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활성화 시켜달라고 요청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가장 필요한 회원 모집 부분부터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라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학교에 참여해야하는 아버지회 특성상 모임 초기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아버지회의 입장이다. 작년에 새로 생겨 아직 틀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온전히 아버지회 스스로 모임을 운영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운영: 학교가 원래 계속 주체가 돼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는 대요. 아버지회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주호: 아버지회가 주체가 되는 건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인원도 없는데, 지금, 정말.

권상진: 그렇죠.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구요. 어느 정도 좀 잡힐 때까지는 학교 측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됐다는 거죠.

(I-C-2019.10.11. 아버지회 그룹 인터뷰 자료)

아버지회 학부모의 경우, 아버지회 이외의 학교 참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육주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교육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의 학부모 모임으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학교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있어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모임이 만들어지기 전 모임의 취지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치 않았고, 모임이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소통도 충분치 않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사.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으로: 교육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

교육공동체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안팎의 구성원들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함께 달성해야 할 ‘교육 목표’이다. 아이를 함께 ‘잘’ 키운다는 것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이렇게 ‘아이의 바람직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지에 대해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선생님이 굉장히 잘 이야기해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 아이를 키우는데, 학교와 가정과 이렇게 동반성장한다라는 게 되게 많은 체득을 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I-C-2019.10.11. 이유정 인터뷰 자료)

행복씨앗학교가 유지되는 한 세 개 공동체가 같이 돌아가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행복씨앗학교의 취지가 학부모와 선생님과 학교 측에서 원하는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한은 참여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I-C-2019.10.11. 이유정 인터뷰 자료)

박한숙, 이대용(2017)은 초등학교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공유된 비전’, ‘민주적 참여’, ‘연대적 협력’, ‘관계적 돌봄’ 등의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청주S초등학교의 학부모 역시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소통을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부모들은 명확한 학부모 정책이 제시되고 정착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고,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 역시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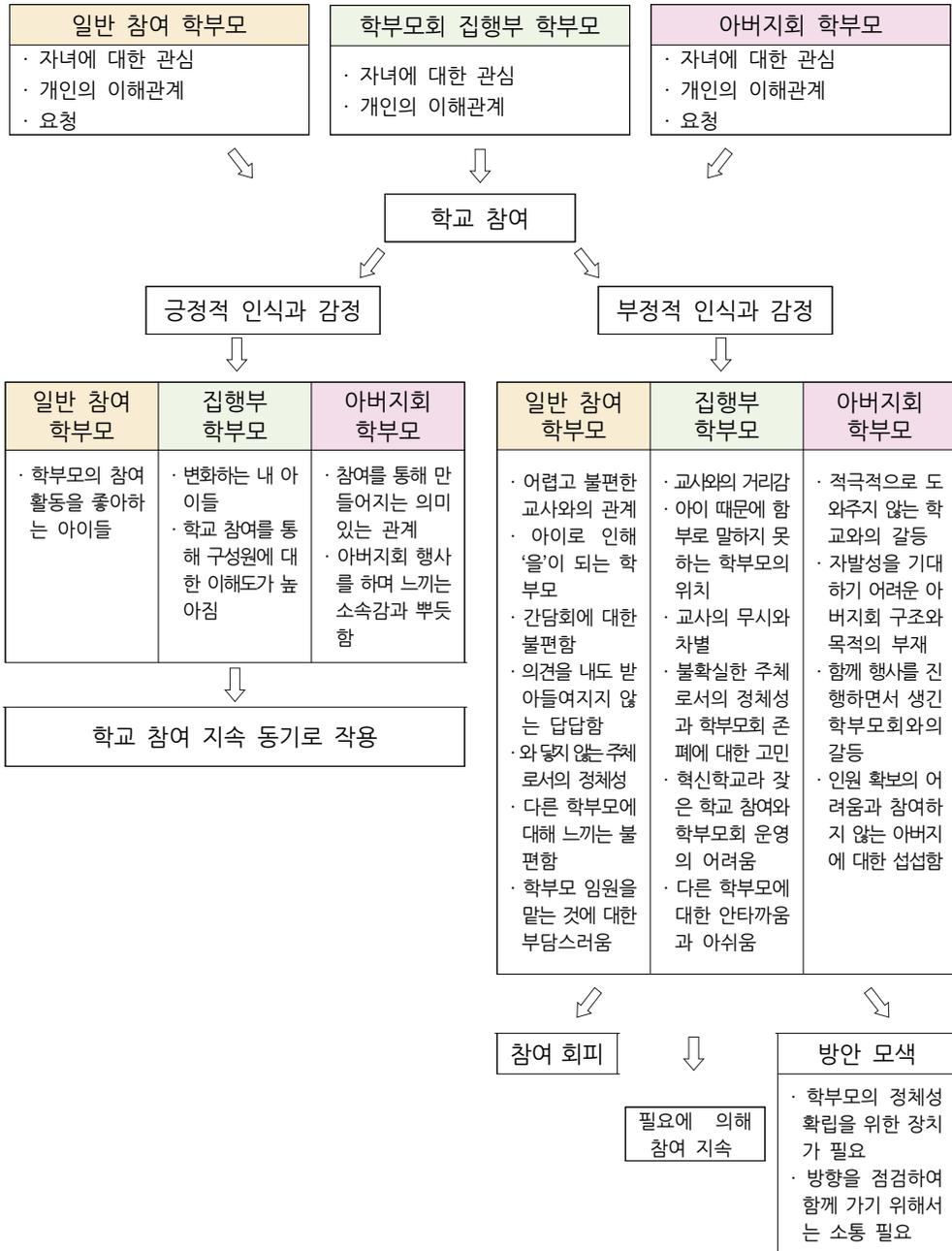
그걸 딱히 저희한테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왜냐면 저희만으로 가라 그러면 당연히 자기 성격대로만 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학교라는 분명히 틀이 있으니까, 그 틀에 맞춰서는 가야하지 않을까. (I-C-2019.10.11. 장주호 인터뷰 자료)

그러니까 약간, 작년에서 올해 바뀌면서 학부모는 학교 참여활동에, 아니 학부모회에 당연히 귀속? 당연히 학부모회에 소속이 된다. 이런, 약간 이렇게 조항 같은 거를 바꿨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충북권이든 서울 경기권은 약간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그런 게 딱 정해졌으면 좋겠는 것 같기도 하고. 교육도 선생님들은 행복씨앗학교라고 해서 오게 되면 미리 다 교육을 하잖아요. 시간을 주고 하는데, 학부모는 그런 게 없어요. 학교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가 행복씨앗학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되는지. (I-C-2019.10.11. 김희주 인터뷰 자료)

학교라는 공간은 이제 더 이상 교사와 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공간인 것이다. 여기서 학부모는 학교의 주인으로 서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여러 방향의 소통과 정책 구안은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 내 학부모 인식과 감정 분석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의 사례 내 분석, 사례 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의 인식과 감정을 분석하였다.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는 다양한 동기로 학교에 참여하고 있었고, 학교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모두 경험하고 있었다.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

학부모의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은 내 자녀나 다른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거나, 구성원들과 함께 즐거운 경험을 했을 때, 학교 참여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감정은 학교 구성원들 중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한 활동 중 느낀 즐거움이나 보람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은재(2017)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참여를 해 온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학부모 자신의 즐거움과 보람이 계속적으로 학교 참여를 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학교 참여의 시작은 아이였을지 모르겠으나, 그 지속은 아이라는 매개보다는 학부모 자신의 만족감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에도 학부모는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쁨, 즐거움, 뿌듯함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내 아이를 통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보람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의 경험은 다음 학교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은 주로 교사나 다른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 스스로가 인식하는 학부모의 역할이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었다.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안타까움, 답답함, 서운함, 불편함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하고 싶어도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에게는 안타까움을, 시간이 나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답답함, 교사에게 개인적인 민원 해결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불편감을 느끼고 있었다. 학부모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는 불편함, 화, 실망감, 서운함, 답답함, 좌절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주로 느끼고 있었다. 학교가 요구해서 학교를 위해 봉사했는데, 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힘든 일을 떠맡기는 느낌이 들 때 주로 '화'의 형태로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준중(2012)은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상호작용은 '내용'의 소통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행복 그리고 경멸과 비난과 같은 '감정'이 소통되는 통로라고 이야기했다. Kemper(2007)에 따르면, 두려움이나 공포는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에 비해 권력이 작고 종속될 경우에 나타나며, 화는 상대방에 의해 자신의 지위가 방해받거나 부인될 때 나타난다고 했다. 화는 자신이 기대한 지위가 상대방에 의해 부정될 때 발생하며 우울은 그러한 지위 상실의 복구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경향(손준중, 2012)이 있다. 이처럼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감정은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과 지위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다(손준중, 2012).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학부모간 상호작용은 학부모 본인이 본인을 '을'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생하는 계층으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고, 부정적인 감정은 학부모가 스스로 인식한 학부모의 지위가 부정될

때 주로 드러나고 있었다.

청주S초등학교는 끊임없이 학부모를 ‘교육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학부모 스스로는 본인 ‘교육주체’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정체성을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참 여 도 ↑ ↓ 높 음	적극적 교육소비자	적극적 교육조력자	적극적 교육주체
	잠재적 교육소비자	잠재적 교육조력자	잠재적 교육주체
	낮음	→	높음
		주체성	

[그림 2]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정체성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 중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학교 참여도가 높은 적극적 참여자에 해당하였고, 주체성에 따라 교육소비자, 교육조력자, 교육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연구를 위해 수집한 학부모 관련 자료와 연구자의 학교 참여 경험,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잠재적인 교육소비자, 교육조력자, 교육주체 역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학부모의 인식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참여 학부모 모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는 각기 다른 상황이나 장면에서 교육소비자, 교육조력자, 교육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이며 학교에 참여하고 있었다. 교육소비자는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학교에 요구하는 모습만 보이는 학부모를 말한다. 권미경, 김천기(2015)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소비자로서의 학부모는 학부모가 해야 할 가정의 역할이나 보육의 역할까지 교사가 해야 할 일로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한 요구를 당연시 여긴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자녀를 통해 알게 된 교사의 모습을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며, 교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교장이나 교육청의 힘을 이용하거나 학부모들끼리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교육조력자는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조력자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인식 하는 학부모를 이야기한다. 교육조력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 학교에 참여하고, 교육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다. 학부모가 급식도우미, 교통안전요원, 행사 지원, 보조교사, 일일교사 등과 같은 교육지원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교육조력자의 경우에는 학교가 만들어 놓은 참여 활동의 장에 수동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교육주체는 학부모가 학교의 공동주인으로서 학교 교육 참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상태를 의미한다(오재길, 2017). 교육주체로서 학부모는 일차적으로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갖는 것이고, 나아가 개인적 차원의 부모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학부모이며, 자신의 자녀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의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를 실천하는 학부모이다(최운진, 2018). 청주S초등학교 학교 참여 학부모는 교육소비자의 정체성에서부터 교육주체로서의 정체성까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정체성	사례
교육소비자	- 간담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질책 - 교육의 책임을 학교에 전가 -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고 민원제기 - 본인의 자녀만을 위한 요구
교육조력자	- 학교를 돕기 위해 활동 한다고 인식 -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교 활동을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인식 - 학교에서 하는 봉사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교육주체	- 자발적인 학부모 조직 및 운영 -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 진행 - 3주체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안 모색

청주S초등학교 학교 참여 학부모는 주로 교사-학부모 간담회에서 교육소비자로 본인을 인식하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에서 나타난 학부모의 모습 중 아이에 대한 모든 교육의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는 모습, 개인적인 민원의 처리를 요구하는 모습은 학부모 본인이 의식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그동안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내면화한 교육소비자로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교육소비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청주S초등학교의 학교 참여 학부모 대부분은 스스로를 교육조력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 될 수 없고, 학교의 필요나 요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필요에 맞게 학교가 학부모 활동을 주도적으로 계획,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교육조력자로 인식하는 경우, 학부모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자신은 교육조력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학교가 해야 할 일을 학부모가 떠맡는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며 학교가 주도해서 학부모 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다. 또한 교육조력자는 학교가 요청해서 희생하며 봉사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봉사

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서운함과 속상함을 느끼기도 했다.

학부모가 자신을 교육조력자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의 영향력도 크다. 청주S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를 ‘교육주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상황에서 학부모를 ‘교육조력자’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교육주체’로서 활동하려던 학부모들도 다시금 스스로를 ‘교육조력자’로 인식하고 활동하게 만들었다. 일반 학부모 중 일부는 학교가 마련한 소통의 자리에서 교육적 의견을 이야기해 보았지만 학교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좌절감을 경험을 한 후 회피의 방식으로 교육조력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학부모회 집행부 학부모 중 일부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봉사 활동을 시작했지만 교사와의 소통과정에서 교사가 학부모를 조력자로 대하자 다시 조력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학부모가 학교나 교사가 학부모를 ‘교육소비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교육주체’로 본인을 인식하고 있는 학부모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주체로서 무언가를 시도해보려고 했던 학부모들은 학교의 영향력에 의해 교육소비자나 교육조력자로 본인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학부모의 적극성과 참여 의지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학부모들은 교육소비자나 교육조력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행동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교육주체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교육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학부모 모임을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려는 시도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참여 활동을 내 아이만을 위한 활동으로 규정짓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위한 활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소외된 아이들을 배려하는 모습에서도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교육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활동하는 학부모의 경우, 학교 참여 활동을 내 자녀를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세 주체가 함께 성장해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에게서 드러나는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리 발현되었다. 학부모는 교육공동체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구성한다. 그러므로 학부모의 정체성 인식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충북의 혁신학교인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을 탐색한 사례연구로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탐색한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 학부모로서 학교 참여 과정에서 학교 주체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 개인의 이해관계, 혹은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학교 참여를 시작, 유지하고 있었다. 꾸준히 학교에 참여하며 ‘내’ 아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되었고, 학교 이외의 마을 공동체로도 한걸음 더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사이에 두고 자신을 ‘을’이라고 느끼는 학부모들은 교사와의 관계를 어려워했고, 같은 학부모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양상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학부모 참여 활동 운영 시 일반 학부모들의 호응과 참여가 부족해 몇몇 학부모 임원들이 과중한 책임을 지고 참여하고 있었고, 이는 학부모 임원들의 소진을 가져오기도 했다.

혁신학교 정책은 학생과 교사, 학교장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하나의 교육주체이자 학교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최운진, 전하람, 2019)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은 아직 교육주체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혁신학교 학부모로서 학교 참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의 존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곳이 바로 혁신학교 현장이라는 점(배은주, 2014)에서 향후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방식은 교육현장 전체에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혁신학교 학부모는 학교 참여 과정에서 양가적인 인식과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모두 경험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학교 참여의 지속 동기가 되기도 하고, 회피 동기가 되기도 했다. 학부모의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은 주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났고, 활동을 통해 느낀 즐거움, 보람과 관련이 있었다.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은 주로 학부모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났고, 이는 학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계가 있었다.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는 본인을 ‘교육소비자’, ‘교육조력자’, ‘교육주체’로 인식하며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특히 교육조력자로 본인을 인식할 때 화, 서운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주S초등학교는 학부모를 ‘교육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호작용에서는 ‘교육소비자’나 ‘교육조력자’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는 학부모 스스로가 본인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 큰 영향을 끼쳤다. 청주S초등학교 학부모의 정체성은 고정적이지 않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혁신학교 학부모는 자신들의 학교 참여가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기 위해서는 내외부적인 지지체계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다. 혁신학교 학부모 스스로가 교육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이미 혁신학교에서의 학부모회 참여는 일반학교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학교 수준의 변인 중에서 의미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음(김은영, 권순범, 이강이, 2018)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학부모가 학교 참여 중에 경험한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교 내외부적인 지지체계가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와 같은 지지체계는 학교 간 혁신교육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효과와 한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혁신교육정책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최운진, 전하람, 2019).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는 교육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가 않으며, 교육주체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의 학부모 학교 참여를 통해 학교혁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주체’에 대한 사회, 학교, 학부모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학부모를 ‘교육주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 교육주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담론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주체’라는 이름만 내세울 뿐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그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본인을 교육주체로 인식하는 학부모조차도 다시 교육조력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외부, 특히 학교가 주는 메시지의 영향력이 크다. 본인은 주체라고 인식하는데, 사회나 학교가 규정짓는 학부모의 정체성은 소비자나 조력자라면 인식과 규정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학부모는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교육공동체로서의 학부모를 이야기하며 학부모가 교육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의 학부모 정책은 관행을 따라 가고 있다.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주체에 대한 사회, 학교, 학부모 모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어떤 상황이나 장면에서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학부모의 주체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참여 경험이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이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면 학부모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자주 범한다. 그래서 학교는 학부모의 주체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참여도에만 집중하고 가시적이고 성과위주로 학부모회를 바라보는 일이 많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상태를 곧 학부모의 교육주체성이 강화된 상황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부모 교육주체성의 정도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정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주체성 여부를 따져 봐야한다. 어떤 장은 학부모의 참여도와 주체성을 낮추고, 어떤 장은 학부모의 참여도와 주체성을 높인다. 잠재적 교육주체가 적극적 교육주체로 발현될 수 있는 장, 적극적 소비자가 적극적 교육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 참여 학부모의 감정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학부모의 감정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다. 학부모의 감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은 학부모가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학교 참여 학부모의 감정은 다른 상호작용 대상과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학부모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상호작용의 역동을 밝히는 것 또한 앞으로의 학부모 학교 참여를 통한 학교혁신을 실천함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에 대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각 사례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양적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각 사례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보편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부모의 주관적인 경험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한 학교나 교사의 경험과 인식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을 위해 사례 내 분석, 사례 간 분석, 전체 분석을 통해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혁신학교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학부모 집단의 학교 참여 경험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학교 참여 경험에 대해 한 주체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나 교사 등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는 방식이 시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논문 투고일: 2021. 7. 1. ※ 논문 수정일: 2021. 8. 8. ※ 게재 확정일 : 2021. 8. 30.

〈참고문헌〉

- 권미경, 김천기(2015). 교사의 관점에서 본 학부모의 소비자 주권적 태도와 그에 따른 교사의 위축 및 정체성변화. **교육종합연구**, 13(3), 83-109.
- 권미경(2016). **신자유주의 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적 권리인식과 교사의 정체성 변화**.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경기도교육청(2018).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혁신**. 경기도교육청.
- 김기수, 강대중, 김봉제, 김장중, 오재길(2019). **학부모와 공교육**. 교육과학사.
- 김민규, 박세진(2019). 혁신학교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37, 149-174.
- 김민지(2020).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성한(2018). **혁신 학교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2016). 학부모 학교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4), 139-154.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은영, 권순범, 이강이(2018). 초·중학교 학부모의 학부모회 인지도 및 참여 관련 요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6), 509-525.
- 김장철(2017). **초등학교 교사-학부모 갈등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 및 대응 전략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류방란, 황지원, 임후남, 김경애(2019). 초중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효과 분석: 학교만족도, 학교신뢰도,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연구**, 29(2), 169-193.
- 문혜림(2017). **국내 혁신학교 연구들에 대한 종합 분석**.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상완, 황해동 (2019). 미래형 혁신학교의 교무행정인력 직무수행 실태조사. **한국지방교육연구** **구소 이슈페이퍼**, 2019-2.
- 박한숙, 이대용(2017).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및 학생 인식에 근거한 교육공동체 개념 요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8), 291-310.
- 배은주(2014). 혁신학교 운영의 특징과 갈등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24(2), 145-180.
- 서민희, 전경희(2018). 초등단계 혁신학교 재학 경험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39(1), 1-21.
- 손준중(2012). 편안한 협력자 또는 불편한 감시자: 초등학교 교사의 학부모에 대한 감정연구. **한국교육**, 39(3), 33-57.
- 송병춘(2013). 교육행정 혁신의 과제: 교육행정 혁신 없이 학교 혁신도 없다. **교육비평**, 31, 66-85.
- 오재길(2017). 학부모의 교육주체성 강화 방안 탐색. **학부모연구**, 4, 57-74.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9).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주영, 유성상, 김진아, 권순정(2016). 국내혁신학교연구에 관한 동향분석. **평생학습사회**, 12(3), 81-105.
- 이경아, 양병찬, 이진이, 심명인, 윤정은(2010). **지역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평생교육진흥원.

- 이기석(2018). 초등학교 교사-학부모 의사소통 탐색: 행동경제학의 적용. **학부모연구**, 5(3), 69-92
- 이병준, 이경아, 정미경, 이현동(2016). 학교문화 개념분석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1, 89-115.
- 이연선, 연희정, 한안나(2017). 한 초등교사의 혁신학교 교육경험에 관한 내러티브탐구. **교육혁신연구**, 27(1), 63-90.
- 이윤승(2016). 단위학교 주도 혁신학교와 교육청 주도 혁신학교의 초등 교사 직무만족 차이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주연, 이경언, 이민형, 임유나(2020).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학연구**, 58, 191-221.
- 이현아(2014). 집단면접조사를 통한 아버지 학교 참여 사례 연구.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2(5), 179-191.
- 조영미(2017). **어서와 학부모회는 처음이지?**. 서울: 맘에드림.
- 조은재(2017).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사례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윤진, 심재휘(2018). 초등학교에서의 자녀 학업성취, 학부모 학교참여, 학교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혼합연구: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6(3), 89-121.
- 최윤진(2019). 혁신학교 학부모 동아리 참여 의의와 제약. **교육사회학연구** 28(1). 99-140.
- 최윤진, 전하람(2019). 혁신학교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제약에 관한 질적 연구: 입시교육 현실에 간힌 교육공동체의 실상. **한국교육학연구**, 25(2), 289-322.
- 황철형, 최류미, 김대현(2019).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초등교사의 시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105-127.
- 홍송이(2016).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을 적용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동기 탐색. **학부모연구**, 3(1), 55-73.
- John W. Creswell(2019).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 Robert E. Stake(2000). **질적 사례연구**(홍용희 번역). 서울: 창지사.

〈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ental School Participation in the Innovation School

Kim, Minji¹, Lee, Jaeyong²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epth analysis and exploration of how parents of S Elementary School, a Chungbuk-type innovative school, members of the school through school participation experiences and what experiences they have in the process. To this end, a total of 11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by dividing the participating parents into participating parents, parents the parent association executive department, and parents the association.

Parents of S Elementary School both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and emotions through school participation, which had an impact on future school participation activities. When parents of S Elementary School themselves as and they felt more negative emotions such as anger and sadness. It was found that the identity is not fixed and changes fluidly depending on the interaction or situation among members.

Therefore, for in schools to move in a more desirable direction,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ir perception of educational subject their experience participating parents' identity as educational subject, and analysis of school parents' feelings.

Keywords : innovative schools, parental school participation, educational subject, parents' perceptions, parents' feelings

1. Teacher, Seonghwa Elementary School, edel97@naver.com (Lead Author)

2.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ducounsel@cje.ac.kr (Corresponding Author)